

名前：

요즘의 사회는 디지털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이로 된 자료를 전부 E-Book 이라는 컴퓨터 파일로 바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이신문과 같은 것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물론, 뉴스나 필요한 생활정보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니까,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다.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노인을 위해서라도 아날로그 자료는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필요한 이유는 많이 있다.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하는 교육자, 연구자, 학자 등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옛날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라 늘 것은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때를 가리킨다. 신문이나 잡지야말로 인간다움을 맛볼수있다.

필요한 사람이 적으니까 이제 필요없다고 하기 보다는, 적어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에 올린 뉴스는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으면 바로 고치거나 지울수있다. 그래서 신문보다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 또, 자신의 뉴스를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쓴다. 자극적인 제목을 클릭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인터넷의 글은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신용할 수 없다.

인터넷문제나 책임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디지털 자료를 신용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1800字